

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떡국 나누기' 행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김종호) 봉사동아리 '러브 핸즈(Love Hands)'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청자기복지회관에서 흘로 사는 노인 등을 초청, '이웃사랑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새물결국민운동 동구지부 불우이웃에 쌀



새물결국민운동 광주 동구지부(지부장 최관선)는 최근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 15가구를 찾아 각각 20kg들이 쌀 1포대씩을 전달했다.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4년만에 현역 복귀



고환암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올라섰던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8)이 은퇴 4년 만인 이달 호주에서 열리는 '투어 다운 언더 대회'를 통해 현역에 복귀한다. 2005년 '투르 드 프랑스'(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를 우승하고 나서 은퇴한 암스트롱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호주 에스테이드에서 열리는 투어 다운 언더 대회에 현역 복귀 선언 뒤 처음으로 출전했다고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투르 드 프랑스 사상 첫 7연패의 위업을 이룬 암스트롱은 이스타나 팀에 소속돼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이탈리아 일주대회인 '지로 데 이탈리아'와 투르 드 프랑스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암스트롱은 1996년 고환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도로사이클 경주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7년 연속 우승하는 위업을 이룬 뒤 2005년 은퇴했다.

손 펜 전미영화비평가협 남우주연상



영화 '밀크'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손 펜이 지난 3일 전미영화비평가협회(NFSC)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고 AP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밀크'는 1978년 암 살린 동성애자 정치인 하비 밀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손 펜은 밀크 역을 맡았다.

여우주연상은 해피 고 럭키의 셀리 호킨스에게 돌아갔다. 이 영화는 여우주연상과 함께 감독상(마이크리), 각본상(마이크리), 남우조연상(에디 마르션) 등 4개 상을 획득했다. 작품상은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형식이 결합된 '바시트와 월츠'가 받았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안정석·김선자씨 장남 영준군 양계열(광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정점숙씨 장녀 현양=11일(일) 오전 11시50분에 애벌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황선웅((주)정인 회장)·강양미씨 차남 정인군 김신곤·김영숙씨 차녀 윤선영=11일(일) 낮 1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5회 동창회(회장 양정윤) 월례회=5일(월) 오후 6시 금강 산식당, 062-224-0808.

▲광주 북성중 6회 동창회(회장 국성룡) 월례회=6일(화) 오후 6시 상무지구 통큰소, 1688-6692.

▲강진고 일구삼심회(회장 윤봉

현) 정기총회=6일(화) 오후 6시 부 강식당, 011-629-541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호남해바리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child.or.kr

▲광주심리상담센터 습관성 도박 무료 상담=습관성 도박 및 투기, 투자에 대한 전문 상담치료. 062-527-3400, 340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이동기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

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토차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글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ガ, 웃음교育,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산수도서관 서예교실 제10기 무료 수강생 모집=개강 6일(화) 오전 10시. 011-602-6261(총보부장 유재영).

▲수도방위시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회원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 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

십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온암암 죽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카리마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회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떠맡았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 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경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인사

구 ▲여수지사 이종명 ▲시설 팀장 박영진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장 심규열 ▲제1발전소장 강재열

◆한국전파진흥원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이내원 ▲검사팀장 김경우 ▲목포검사팀장 서영종 ▲여수검사팀장 이태인

◆대한생명

▲광주지역본부부장 최광선

=풀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복·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 30분).

▲광주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62-572-0129.

부음

▲정기남씨 별세 영호·영진·영도·영국·옥진·마자씨 부친상 이명렬씨 빙부상=발인 6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314.

▲이돈신씨 별세 관진·권주·영희·은주씨 부친상 전태형씨 빙부상=발인 5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382.

▲유병섭씨 별세 필종·승우·지

전남대 총동창회 신년 인사회

김국웅 전남대 총동창회장을 오는 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북구 종흥동 총동창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총동창회 임원



과 광주·전남지역 단체·기관장,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 합격한 동문들의 축하연도 함께 열린다.

무안 출신 김옥형 전 의원 별세

무안 출신으로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옥형 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5시40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총무처 차관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1960년 민주당 소속으로 무안갑에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1979년 2월부터 3년간 한성대학장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2남1녀가 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6호이며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는 무안 선산이다. 031-787-1500.

/무안 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연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심국제고 김규명(3년·미 뉴욕대 경영학과 학격·사진 원쪽)·규남(2년) 형제가 7일 오후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청심국제고 재학 출신 김규명·규남 형제

200시간 봉사…'알바'로 번돈 영아원 기부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잠자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연 평균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설 것이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고등학생들이 있다.

특목고인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규명(18·3학년)·규남(16·2학년) 형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 형제는 매주 토·일요일은 온통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낸다.

이들 형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목포 영흥중학교 시절, 부모의 권유로 양로원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봉사도 나더라웠다. 또 학교 친구들과 함께 뱡드를 만들어 노인병원 등에서 위문공연을 펼쳤기도 했다.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에 학격, 오는 8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형 규명군은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으로 지난해 8월 북한 고성군 온정리에서 펼쳤던 짐짓기 운동을 꼽았다. 규명군은 "신문기사나 뉴스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많이 그려져 걱정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 양국만 다를 뿐 한국사람, 한민족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동생 규남군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배우는 게 많다"며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꾸렸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 번 돈을 지역을 위해 쓰자는 취지로 이름을 '남도상인'이라고 붙였고 현재는 장우정(청심국제중 3년)양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을 껴줄에는 농협에서 쌀 판매 아르바이트

를 해 번 돈을 2년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 영아원시보호소에 전액 기부했다.

규명군은 "만일 봉사활동을 안 했다면 인생의 목표도 달랐을 것"이라며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돋보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봉사 통해 더 많은 공부 하고 있어요"

200시간 봉사…‘알바’로 번돈 영아원 기부도

작대적으로 많이 그려져 걱정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 양국만 다를 뿐 한국사람, 한민족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동생 규남군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배우는 게 많다"며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꾸렸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 번 돈을 지역을 위해 쓰자는 취지로 이름을 '남도상인'이라고 붙였고 현재는 장우정(청심국제중 3년)양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을 껴줄에는 농협에서 쌀 판매 아르바이트

를 해 번 돈을 2년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 영아원시보호소에 전액 기부했다.

규명군은 "만일 봉사활동을 안 했다면 인생의 목표도 달랐을 것"이라며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돋보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 최고 천일염 생산"

자랑스런 전남인상 신안 증도 신일염전 최신일 대표

신안군 증도 신일염전 최신일(36) 대표가 전남 천일염의 산업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전남인상'에 선정됐다.